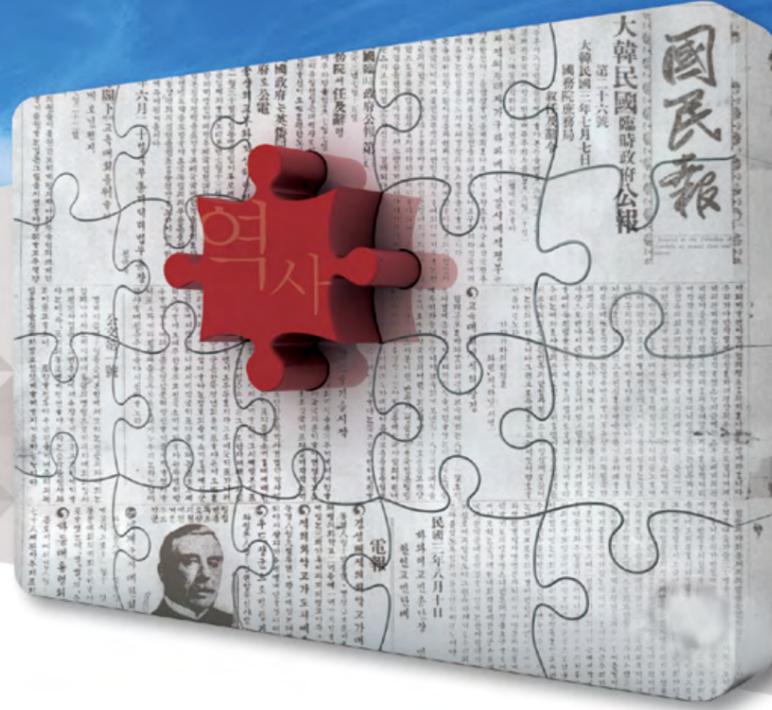


# 또 하나의 역사 퍼즐, 『국민보(國民報)』

글. 윤종문 (국가보훈처 연구원)



## 1. 하와이 한인 사회의 형성과 언론

한인(韓人)들은 1903년부터 하와이로 이민을 떠났다. 생소한 지역으로 한인들이 이주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개개인의 열악한 경제적 사정, 대한제국(大韓帝國)의 '개국진취(開國進取)' 운동 전개,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와이 농장주들의 공통분모가 겹쳐졌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이민을 택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이상의 이유로 '불모(不毛)'의 지역에서 희망을 찾아 떠난 대다수의 한인들은 하와이의 여러 섬에 흩어져 사탕수수 농장에서 삶을 살아갔다. 하지만 하와이에 거주하고 있던 한인들의 삶은 그 이전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농장주들이 제시한 열악한 계약조건을 받아들여야 했으며, 인종차별에 따른 심한 모멸감도 감내해야만 했다.

농장주들의 부당한 대우 속에서 한인들은 좀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세 개의 축을 형성해 나갔다. 이들은 먼저 단체를 조직하여 한인사회의 단결을 도모하는 한편, 이를 통해 농장주들의 비합리적인 행포를 막고자 했다. 친목도모에 머물러 있던 초기 한인단체의 성격은 일본의 강압에 의해 체결된 을사조약, 헤이그 밀사였던 이준(李儔)의 자결, 장인환(張仁煥)과 전명운(田明雲)의 스트브스(D. W. Stevens) 저격사건을 계기로 독립운동을 추구하는 단체로 변모해 갔다. 한인들은 단체의 조직과 더불어 자신들의 신앙심 함양과 정신적 안정을 찾고자 종교 특히 교회를 설립했다. 대표적인 것으로 하와이 한인 감리교회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인들은 자신들과 자녀들을 교육시키고자 교회당에 학교를 세웠다.

이처럼 하와이로 이민을 갔던 한인들은 자신들의 사회를 유지하고, 효과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단체, 교회, 학교를 세웠다. 하지만 한인들이 만들었던 세 개의 축만으로는 사회를 재생산하고 지속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 없었다. 하와이 한인지도자들은 한글을 알지 못하는 한인들을 계몽하고 민족의식을 함양시키고 나아가 한국독립운동의 방략과 활동을 국내·외 한인들과 세계열강에 알리고자 잡지와 신문 등을 발행했던 것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최윤백 등이 주도하여 1904년 3월 7일에 창간한 『신조신문』, 한인감리교회에서 발행한 『포와한인교보』와 『한인시사』, 전흥협회(電興協會)가 1908년 5월 2일에 창간한 『전흥협회보(電興協會報)』 등을 들 수 있다.

한인지도자들이 이민 초기에 창간한 신문과 잡지들은 단명하고 말았다. 당시 발행되었던 신문과 잡지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발행되지 못한 이유가 있었다. 첫째, 당시 적지 않은 한인들은 한글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이에 신문과 잡지의 구매자가 떨어졌던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둘째, 당시 이를 발행하던 기관들은 조악한 인쇄설비와 빈약한 운영자금을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당시 한인들은 통일 기관을 형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하와이 이민 한인 수는 최대 8,000명이 넘지 않았다. 한인들은 하와이 여러 섬에 흩어졌으며, 산재한 지역을 중심으로 단체를 조직하고, 신문과 잡지 등을 발행했다. 그 결과 한인들의 역량과 재력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한인들은 이러한 난관을 타개하고자 단체 통일운동을 전개했으며, 그 결과 한인협성협회(1907. 9. 2.)-국민회(1909. 2. 1.)-대한민국민회(1910. 5. 10.)로 이어지는 한인통일단체를 결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통일단체의 결성으로 인해 한인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고 독립운동 후원할 수 있는 신문이 등장하였던 것이다.

## 2. 『국민보』의 기원

대한민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의 기관지였던 『국민보』의 기원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미주한인들이 전개한 통일운동에 주목해야 한다. 일본이 대한제국의 황제와 대신들을 겁박하여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자, 하와이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섬에 산재해 있던 수십 개의 단체들을 통일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 결과 하와이 24개 한인단체와 한인지도자 30명이 호놀룰루에 모여 들었다. 이들은 1907년 9월 2일에 호놀룰루에서 한인합성협회라는 통일단체를 결성하기로 뜻을 같이 했다. 그리고 한인협성협회 지도자들은 1907년 10월 22일부터 기관지 『한인협성회보The United Korean News』를 발행했다.

하와이 단체 통일 열기는 미국 전체로 번져갔다. 하와이 한인협성협회 대표 민찬호, 고석주 등은 북미 최대의 한인단체였던 공립협회의 최정익, 이대위 등과 공동으로 1908년 10월 23일에 합동발기문을 발표하였으며, 통일단체명을 '국민회(國民會)'라고 칭하기로 했다. 국민회는 1910년 5월 10일에 공립협회와 반목을 거듭하던 대동보국회와 통일하면서 '대한민국민회'로 거듭났다. 미주 최대의 한인단체인 대한민국민회가 설립되자 종전의 공립협회는 북미 지방총회, 한인협성협회는 하와이 지방총회를 변경 되었으며, 각각의 단체가 발행하던 기관지의 명칭도 변경 『공립신보(共立新報)』에서 『신한민보(新韓民報)』로, 『한인합성협회보』에서 『신한국보(新韓國報)』로 변경되었다. 대한민국민회 하와이 지방총회는 1913년 8월 1일부로 기관지의 명칭을 『신한국보』에서 『국민보』로 다시 개칭했다.

하와이 한인사회의 최대 기관지였던 『국민보』는 1968년 12월에 폐간될 때까지 다음 두 가지 역할을 자임했다. 첫째, 『국민보』는 하와이 한인동포들을 계몽했으며, 한인 1·5세대, 2세대들의 교육활동에 크게 기여했다. 둘째, 『국민보』는 국내·외에서 전개되고 있던 독립운동 소식을 전하면서, 국내·외에 거주하던 일반 한인들에게 항일독립의식을 고취시켰다. 이는 국내에 전해졌던 『국민보』를 통감부가 압수한 사실, 이 신문을 배일신문으로 규정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으며, 김원용이 저술한 『재미한인 50년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는 여기서 『국민보』는 “40년 동안 끊임없이 발행되었으며, 이민동포의 문맹퇴치운동과 자녀들의 교육장려 그리고 조국의 독립운동 후원”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국민보』의 주필은 박용만, 이승만 등 당대 최고의 독립운동가들이 담당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국민보』는 하와이 한인사회와 독립운동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다.

### 3. 공개된 『국민보』의 주요 내용

하와이 한인들의 실상을 살펴보고 그들의 독립운동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를 파악하고자 국내 연구 기관들은 『신한민보』와 『국민보』 수집에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국민보』 1947년분, 1955~1963년분을 수집했다. 『신한민보』와 『국민보』 수집에 가장 적극적으로 열의를 보였던 곳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였다. 연구소는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던 『신한민보』 1909~1911년분과 『국민보』 1913~1914년분, 1936~1963년분을 수집하여 1995년과 1997년에 영인하여 출판한 바 있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1915~1935년분이 누락되어 있으며, 그것의 소재는 묘연해졌다.

국가보훈처는 2015년 3·1절을 맞이하여 『국민보』를 공개한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국가보훈처가 수집하고 공개한 『국민보』는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캠퍼스(UCLA) 소장본이었다. 현재 이 대학의 동아시아도서관(East Asian Library; Richard C. Rudolph) 진희 섭컬렉션(Hei Sop Chin Archives Collection 367)에는 『국민보』 “Kungminbo” The Korean National Herald, 1918~19년분(Box38), 『국민보』 1919~22년분(Box39), 『국민보』 1930~55년분(Box40), 『국민보』 1956년분(Box41) 소장되어 있는데, 국가보훈처는 이 가운데 1918~22년분을 수집했다. 1997년에 세상에 일부 공개된 『국민보』가 국가기관의 노력으로 십여 년 만에 다시 공개된 것이다.

이번에 수집된 『국민보』 1918~22년분 정확히는 1918년 10월 30일자부터 1922년 3월 8일자에도 상당한 호수가 누락되어 있었다. 비록 상당한 결호가 보이지만, 이 시기에 발행된 신문에는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으며, 이러한 사실들은 파리

하와이 한인사회의 최대 기관지였던 『국민보』는 1968년 12월에 폐간될 때까지 하와이 한인동포들을 계몽했으며, 한인 1·5세대, 2세대들의 교육활동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국내·외에서 전개되고 있던 독립운동 소식을 전하면서, 국내·외에 거주하던 일반 한인들에게 항일독립의식을 고취시켰다.

강화회의, 3·1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워싱턴회의(The Washington Conference, 일명 태평양회의 또는 워싱턴군축회의, 1921. 11. 12.~1922. 2. 6.) 등 한국독립운동사에 있어 중요한 사건들을 다시금 조명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 준다.

먼저 이번에 공개된 『국민보』를 통해 파리 강화회의 당시 하와이 한인들의 입장과 김규식의 활동 등을 새로이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회 지도자들은 ‘전보(電報)’란을 통해 강화회의와 관련된 국제소식을 실어 강화회의를 환기시켰으며, 『평화회설을 들은 자의 감상』(1918. 12. 7.), 『유럽평화가 영구할까』, 『구라파의 평화문제가 한인에게도 유익할까』(이상 12. 17.)라는 제목의 논설과 기사 등을 『국민보』에 실어 강화회의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그리고 「법정에 재한 우리 신정부 외무총장겸 평화대사의 공전」(1919. 5. 21.), 「법국 파리스에서 우리민족을 위하여 고심하시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외무경겸 평화대사 김규식 선생이 재외한족에게 보낸 글을 좌에 등재하노라」(6. 14.), 「대한민국정부 외무부로부터 본 행정부에 달한 국제연맹회의에서 수리하여 공포한 우리 평화대사의 대한독립 요구서 전부를 차례로 역등하여 우리 민족전체에 알게하노라」(6. 12.) 등의 기사를 통해 강화회의 전후 김규식의 정세인식과 활동상을 소개하고 있었다.

두 번째로 이번에 발굴된 『국민보』를 통해 3·1운동 소식을 접한 하와이 한인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보』 1919년 3월 12일자에는 「대한독립광복의 확설」, 「대한독립 광포」라는 기사가 실려 있다. 여기에는 상해에 거주하던 현순(玄楯)이 하와이 지방총회에 전보를 보낸 시기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3·1운동 소식이 어떻게 하와이 한인사회로 전달되었는지 알 수 있다. 「대한독립의 대한 상해특전의 답전」라는 기사를 통해서도 하와이 한인지도자들이 3·1운동을 계기로 미국정부를 상대로 독립승인 청원원동을 전개했다는 사실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대한국민회가 사실상 정부로서 활동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국민보』를 통해 3·1운동 직후 하와이 한인들의 모금 열의를 짐작해 볼 수 있다. 하와이 한인들은 3·1운동 이후 독립운동 전개에 필요한 자금을 하와이 지방총회에 기부했는데, 「독립운동비」(3. 26.), 「독립운동비수입질(獨立運動費收入秩)」라는 기사가 그것을 말해준다.

세 번째로 『국민보』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이전의 대한공화정부(大韓共和政府)의 실체를 파악해 볼 수 있는 다수의 기사들이 실려 있다. 『국민보』 1919년 4월 2일자 별보(別報) 「대한공화정부 조직」, 4월 5일자에 실려 있는 각종 전보 기사, 4월 12일자 「대한국민 공화정부를 다시 조직」 등의 기사가 그것이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대한공화정부의 존재 여부를 두고 많은 논의가 있었다. 연구자들 대부분은 『신한민보』와 현순이 보낸 영문전보에 근거하여 대한공화정부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 갔다. 하지만 이번에 발굴된 『국민보』에는 대한공화정부에 대한 기사가 적지 않게 실려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한공화정부의 실체에 대한 검토가 다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한다.

네 번째로 3·1운동 후 미주지역 한인독립운동의 분수령을 이루었던 워싱턴회의에 대한 하와이 한인사회의 대응 양상을 살



펴볼 수 있는 자료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포르투갈, 중국, 일본 등 9개국 대표단이 워싱턴에 모여 태평양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는 소식을 접한 미주한인 지도자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했다. 이승만과 구미위원부 위원장 서재필은 이번에 개최되는 워싱턴회의가 한국의 독립을 달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호소했으며, 미주 본토의 한인사회는 물론이고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국내의 다양한 민족운동세력들은 이에 호응하여 독립청원운동을 전개했다. 워싱턴회의에 대한 학계의 연구 성과는 이미 나왔다. 하지만 하와이 한인사회의 동향에 대해서는 공백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 발굴된 『국민보』를 통해 공백의 일부를 메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한다.

이 외에도 『국민보』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문건이 다수 수록되어 있었다. 『국민보』 1921년 7월 27일자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大韓民國臨時政府公報) 제22호, 8월 13일자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제26·27호가 수록되어 있다. 이는 기존에는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여기에는 임시정부 국무원들의 활동상, 영일동맹 폐기를 주장하는 공전(公電), 1922년도 임시정부의 예산안 등이 담겨져 있었다. 공보 외에도 임시정부 내무부 공함121호, 1921년 6월 13일자로 공표된 재무부 포고 등이 수록되어 있어 상해시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구미위원부통신」 제31(1921. 9. 14.)·35(11. 5.)·44(1922. 1. 18.)·46(2. 1.)호도 확인할 수 있다. 구미위원부는 이승만이 미국 수도 워싱턴에 설치한 기구이다. 구미위원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대표하여 독립외교 및 선전활동을 전개했으며, 미주한인들로부터 독립운동 자금을 수합하는 기능을 수행한 기관이었다. 「구미위원부통신」은 구미위원부에서 부정기적으로 발행하던 간행물이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국내 제(諸)기관에 소장되어 있던 「구미위원부통신」을 수합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17 : 구미위원부 I』을 발행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결호가 적지 않았는데, 이번에 새롭게 발굴된 『국민보』를 통해 그 일부를 보완하게 되었다. 새롭게 소개된 「구미위원부통신」에는 태평양회의 당시 임시정부 요인들의 활동, 구미위원부 위원장 서재필의 편지, 구미위원부 지방위원들의 현황, 재미한인들의 독립운동 실상 등이 담겨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1. 02 임시정부공보가 수록되어 있는 1921년 7월 27일, 8월 13일자 『국민보』 : 『국민보』 1921년 7월 27일자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大韓民國臨時政府公報) 제22호, 8월 13일자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제26·27호가 수록되어 있다. 이는 기존에는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여기에는 임시정부 국무원들의 활동상, 영일동맹 폐기를 주장하는 공전(公電), 1922년도 임시정부의 예산안 등이 담겨져 있었다.



03 『국민보』 1921년 8월 3일자 기사 : 『국민보』 1921년 8월 3일자에는 임시정부 재무부 보고가 수록되어 있다.



04 ~ 07 새롭게 발굴된 「구미위원부통신」 31호, 35호, 44호, 46호 : 『국민보』 1921년 9월 14일자, 11월 5일자, 1922년 1월 18일자, 2월 1일자 기사

이전에 공개된 『국민보』를 통해 3·1운동 전후 하와이 한인사회와 한국독립운동의 양상들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4. 『국민보』 발굴이 가지는 의미

이번에 공개된 『국민보』를 통해 3·1운동 전후 하와이 한인사회와 한국독립운동의 양상들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가보훈처가 공개한 『국민보』 1918~22년분은 한국독립의 최 정점에 해당하는 시기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이 시기에는 파리강화회의, 3·1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워싱턴회의 등 한국독립운동사에 있어 중대한 사건들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하와이 한인들은 이러한 중대 국면마다 맨 먼저 앞장서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후원했던 집단들이었다. 학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핵심적인 자료가 부재하여 난관에 부딪혀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국민보』는 그동안 자료에 목말라 있던 연구자들의 갈증을 일부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N

##### 필자 소개

서강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 국가보훈처 공훈심사과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공저로는 『이승만과 하와이 한인사회』(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가 있으며, 논문으로는 「미군정 초기 한국학생의 미국파견 정책과 그 성격」(『근현대사연구』63, 2012), 「미군정기 '영어학교'의 설립과 운영」(『한국독립운동사연구』45, 2013), 「항일투쟁기 곡림대의 재미독립운동」(『역사연구』24, 2013) 등이 있다.